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과 시사점

목 차

■ 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對 중국 직접투자 둔화 지속	1
2. 對 중국 직접투자 5대 유형	2
3. 시사점	1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국경제팀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Executive Summary

□ 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과 시사점

■ 對 중국 직접투자 둔화 지속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이 최근 지속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해외투자 대상국에서 중국의 비중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기간별로 볼 때, 對 중국 직접투자는 2000~2007년 연평균 32.3%에서 2008~2015년 -4.2%로 급락하는 등 2008년 이후 투자 위축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00~2015년 동안 對 중국 직접투자의 유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對 중국 직접투자 5대 유형

對 중국 직접투자는 지역별, 업종별, 기업 규모별, 투자 목적별, 현지 경영 여건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2000~2015년까지 국내의 對 중국 투자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동부 지역 위주의 對 중국 투자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약 7억 달러에서 2015년 약 23억 달러로 연평균 8.4% 성장했다. 반면, 중·서부 지역은 투자 증가율이 각각 11.5%, 15.0%로 동부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지만 투자 속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로 볼 때, 동부 및 중·서부 지역 투자는 2000~2007년 각각 연평균 33.6%, 28.3%, -4.8%에서 2008~2015년 각각 -5.9%, -4.8%, 28.9%로 2008년 이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업종별)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對 중국 직접투자는 2000년 5.9억 달러에서 2015년 22.3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동기준 1.6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제조업 투자의 약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투자 비중은 기간별로 볼 때, 2000~2007년 대비 2008~2015년 제조업은 82.1%에서 75.1%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준 15.0%에서 23.2%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서비스업 투자 양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 대기업 주도의 對 중국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점차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對 중국 직접투자에서 대기업은 2000년 5.1억 달러에서 2015년 22억 달러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10.3% 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은 동기준 2.4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연평균 약 6.0% 성장에 그쳤다. 더욱이 시기별 투자 비중에서도 대기업은 2000~2007년 대비 2008~2015년 59.4%에서 77.6%로 급증했으나, 중소기업은 동기준 33.7%에서 19.3%로 급감하였다.

(투자 목적별) 저임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한 對 중국 투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줄고,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이 늘어났다. 투자 목적별로 볼 때,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對 중국 투자 규모는 2015년 현재 22.3억 달러로 전체 對 중국 직접투자의 78.1%를 차지했다. 반면, 저임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한 투자는 동년 각각 1.1억 달러, 3.5억 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對 중국 투자 목적 중 수출촉진 및 저임활용 비중은 2000~2007년 각각 32.3%, 20.7%에서 2008~2015년 각각 17.4%, 11.5%로 감소하였다. 반면 현지시장진출 목적은 동기간 27.6%에서 67.0%로 급증하는 등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 경영 여건) 2008년 이후 외투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하향 조정했으나, 기존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경영 여건이 대폭 악화되었다. 2008년부터 외투기업과 중국 본토 기업 간 동일한 25%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며 내외 기업간 차등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감세 등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항목을 폐지하는 등 영업 환경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 비교 >

구분		'00-'07년 대비 '08-'15년
지역별	비중	▪ 동부지역 감소: 94.1% → 78.8% ▪ 중·서부 증가: 각각 4.7%, 1.2% → 각각 7.6%, 13.6%
	CAGR	▪ 동부 및 중부 급감 : 각각 33.6%, 28.3% → 각각 -5.9%, -4.8% ▪ 서부 급증 : -4.8% → 28.9%
업종별	비중	▪ 제조업 감소: 82.1% → 75.1% / 서비스업 증가: 15.0% → 23.2%
	CAGR	▪ 제조업 하락: 34.2% → -7.9% / 서비스업 하락: 31.5% → -1.6%
기업 규모별	비중	▪ 대기업 증가: 59.4% → 77.6% / 중소기업 감소: 33.7% → 19.3%
	CAGR	▪ 대기업 하락: 32.2% → -1.6% / 중소기업 급락: 31.1% → -10.6%
투자 목적별	비중	▪ 수출촉진: 32.3% → 17.4% / 저임활용: 20.7% → 11.5% ▪ 현지시장진출: 27.6% → 67.0%
	CAGR	▪ 수출촉진: 16.5% → -8.5% / 저임활용: 36.5% → -25.9% ▪ 현지시장진출: 65.6% → 1.8%
현지 경영 여건		▪ 조간별 혜택 부여 → (친환경 등 분야와 중서부 지역 진출 제외)우대조항 전면 폐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첫째, 일대일로 등 중국의 지역별 개발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對 중국 지역별 진출 공략이 필요하다. **둘째**, 고부가 제조 및 서비스업 육성 등 중국의 산업 재편을 겨냥해 다양한 업종 분야의 진출 전략도 구상해야 한다. **셋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노동법 개정 등 최근 對 중국 비즈니스에서 외투기업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이에 맞는 투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1. 對 중국 직접투자 둔화 지속

○ 對 중국 직접투자가 2008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의 해외투자 대상국에서 중국의 비중이 미국의 절반으로 감소

- 對 중국 직접투자 규모와 증가율 모두 둔화 양상을 보임

- 對 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7.7억 달러에서 2015년 28.5억 달러로 15년간 약 4배 증가했으나, 2008년부터 감소세가 지속
- 對 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0년 약 119%에서 2015년 -9.6%로 점진적인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법인수¹⁾도 감소
- 특히,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7년 32.3%로 급증했으나, 2008~2015년에는 -4.2%를 기록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 양상을 보임

-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2008년 이후 하락 지속

-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05년 39.3%로 정점을 이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대로 하락했으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승
- 한편,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중 한국의 비중도 2004년 10.3%로 급증했으나, 2008~2015년 2~3%대 수준을 보이는 등 정체 양상을 나타냄

○ 본 보고서에서는 2000~2015년 동안 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對 중국 직접투자 규모와 증가율 >
(억 달러)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투자금액 기준.

< 對 중국 해외직접투자 비중 >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ODI(Oversea Direct Investment)란 해외직접투자를 의미.

1) 신규 법인수는 2000년 784개에서 2006년 2,293개로 급증하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감소하다 2015년에는 702개로 2000년 수준으로 감소함.

2. 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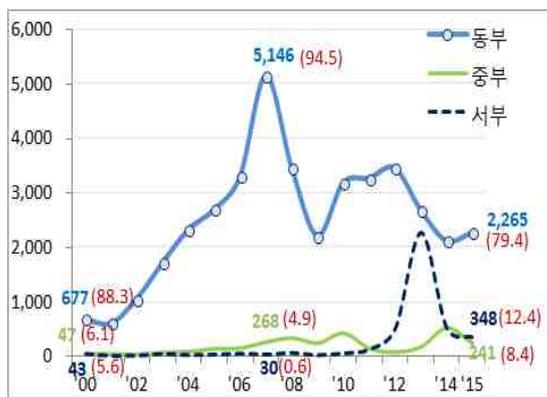
1) 유형별 5대 특징

① 지역별 : 중·서부 투자가 빠르게 증가

○ 지역별 對 중국 투자는 여전히 동부 중심이나 중·서부 지역이 빠르게 증가

- 지역별) 對 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동부 중심 속 중·서부가 빠르게 성장
 - 중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약 7억 달러에서 2015년 약 23억 달러로 연평균 8.4% 성장
 - 중·서부 지역은 동기준 각각 11.5%, 15.0%로 동부에 비해 빠르게 성장
 - 특히, 시기별로 볼 때, 동부 및 중·서부 투자는 2000~2007년 각각 연평균 33.6%, 28.3%, -4.8%에서 2008~2015년 각각 -5.9%, -4.8%, 28.9%로 2008년 이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
- 한편, 성별 투자는 2008년 이후 장쑤성, 산둥성, 베이징 등에 대한 지역 편중이 다소 약화됨
 - 對 중국 직접투자는 2000~2007년 대비 2008~2015년 장쑤성, 산둥성, 베이징, 텐진시 등 지역 투자 비중이 줄고 상하이, 광둥성, 산시성³⁾ 등이 증가

< 지역별 對 중국 직접투자 규모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1) 투자금액 기준.
2) ()는 비중.

< 주요 성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1) 투자금액 기준 기간별 누적.
2) 전체 지역투자 중 상위 지역 비중 기준.

2) 중국의 지역별 분류는 동부지역(베이징, 텐진, 허베이,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하이난 등 11개 지역), 중부지역(산시,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등 8개 지역), 서부지역(쓰촨안, 충칭, 귀주, 윈난, 시장, 산시, 간쑤, 칭하이, 신장, 광시, 내이몽구 등 11개 지역)으로 구분.
3) 산시성(陝西省)에 대한 對 중국 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2013년 시안(西安)에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투자 때문임.

② 업종별 :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對 중국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점차 확대

- 업종별 투자 규모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확대되었으나, 증가 속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양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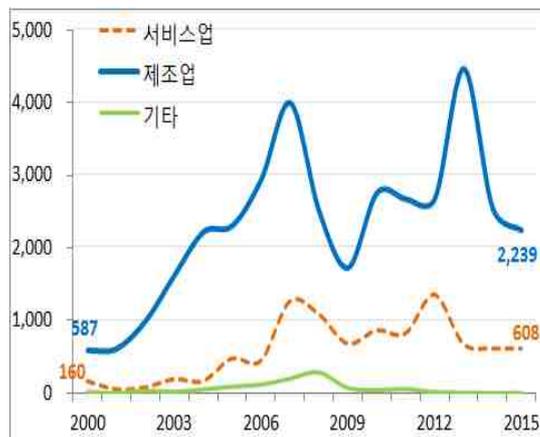
- 對 중국 제조업 투자는 2000년 5.9억 달러에서 2015년 22.3억 달러로 15년간 약 4배 증가
- 서비스업도 동기준 1.6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했으나, 규모면에서 2015년 현재 제조업의 약 27% 수준에 그침
-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000~2007년 각각 연평균 34.2%, 31.5% 성장했으나, 2008~2015년 각각 -7.9%, -1.6% 감소

- 다만, 2008년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승

- 對 중국 직접투자 중 제조업 투자 비중은 2000년 약 77%에서 2015년 약 79%로 소폭 하락, 서비스업도 동기준 20.9%에서 21.3%로 소폭 상승
- 기간별로 볼 때, 2000~2007 대비 2008~2015년 제조업은 82.1%에서 75.1%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준 15.0%에서 23.2%로 증가

< 업종별 對 중국 직접투자 추이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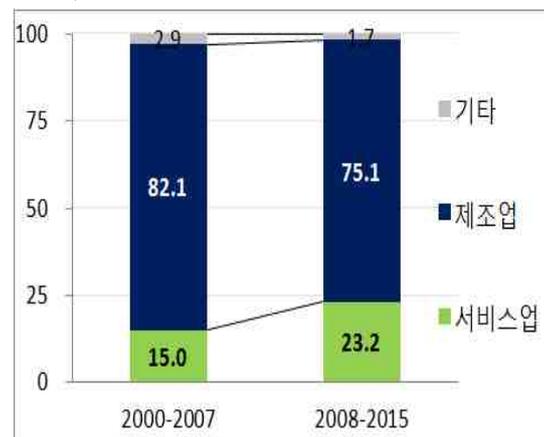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기타는 농업, 광업, 건설업 등 3개 분야.

< 對 중국 서비스 및 제조업 투자 비중 >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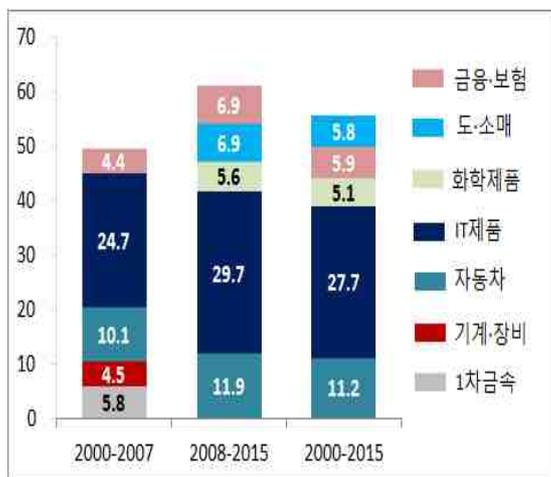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 투자금액 기준, 기간별 누적치 대비 비중.

○ 한편, 對 중국 투자 상위 업종을 볼 때, 제조업은 IT 제품 및 자동차가,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및 도·소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

- 지난 15년간 對 중국 직접투자 주요 품목은 IT, 자동차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
 - 2000~2007년 對 중국 직접투자 상위 5대 분야는 IT 제품(24.7%), 자동차(10.1%), 1차 금속(5.8%), 기계 및 장비(4.5%), 금융·보험(4.4%) 등 순으로 나타남
 - 2008~2015년에는 동기준 IT 제품(29.7%), 자동차(11.9%), 금융·보험 및 도소매업(각각 6.9%), 화학제품(5.6%) 등 순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소폭 상승
-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은 IT 제품,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및 도·소매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 2000~2015년 동안 제조업에 대한 對 중국 투자 비중은 IT 제품 및 자동차가 전체의 약 55%에 이룸
 - 서비스업은 동기준 금융·보험(29.5%), 도·소매(28.8%) 업종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비스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학기술(11.0%), 운수(4.1%)가 새로운 투자 업종으로 부상

< 기간별 對 중국 직접투자 상위 5대 업종 > < 對 중국 직접투자 업종별 상위 비중 >
(비중, %)



구분	제조업(=100)		서비스업(=100)	
	'00-07	'08-15	'00-07	'08-15
1	IT제품 (29.9%)	IT제품 (39.4%)	금융·보험 (29.2%)	도·소매 (29.9%)
2	자동차 (12.2%)	자동차 (15.8%)	도·소매 (26.2%)	금융·보험 (29.6%)
3	1차금속 (7.1%)	화학제품 (7.5%)	부동산 (15.8%)	부동산 (14.7%)
4	기계 (5.5%)	기계 (5.9%)	요식업 (6.0%)	과학기술 (11.0%)
5	화학제품 (5.2%)	1차금속 (4.6%)	여가관련 (5.6%)	운수 (4.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가공.

- 주 1) 투자금액 기준, 전체 및 각 기간별 투자(누적) 대비 개별 업종 투자 비중 상위 5순위.
- 2)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위 5대 업종은 제조업(=100), 서비스업(=100) 기준.

③ 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투자가 위축

○ 기업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 주도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점차 감소

- 對 중국 직접투자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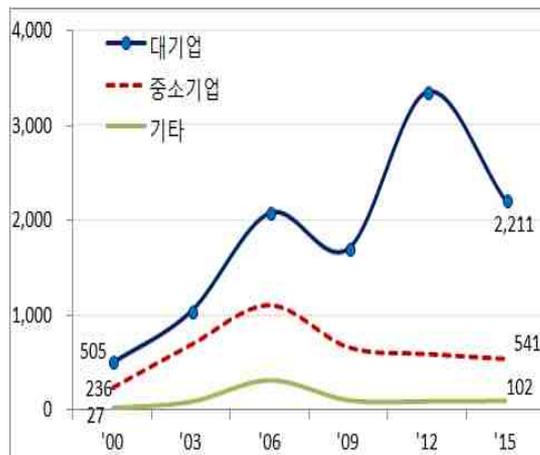
- 對 중국 직접투자에서 대기업은 2000년 5.1억 달러에서 2015년 22억 달러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10.3% 성장
- 중소기업도 동기준 2.4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연평균 5.7% 성장
- 다만, 시기별로 구분하면, 2000~2007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연평균 32.2%, 31.1%에서 2008~2015년 각각 -1.6%, -10.6%로 둔화세 지속

- 한편, 중소기업의 對 중국 투자 비중은 2008년 이후 급감

- 대기업의 경우,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이 2000년 65.8%에서 2015년 77.5%로 지속 확대했으나, 중소기업은 동기준 30.7%에서 19.0%로 축소
- 한편, 2000~2007년 대비 2008~2015년 투자 비중은 대기업은 59.4%에서 77.6%로 급증했으나, 중소기업은 동기준 33.7%에서 19.3%로 급감

< 기업규모별 對 중국 직접투자 규모 > < 기업규모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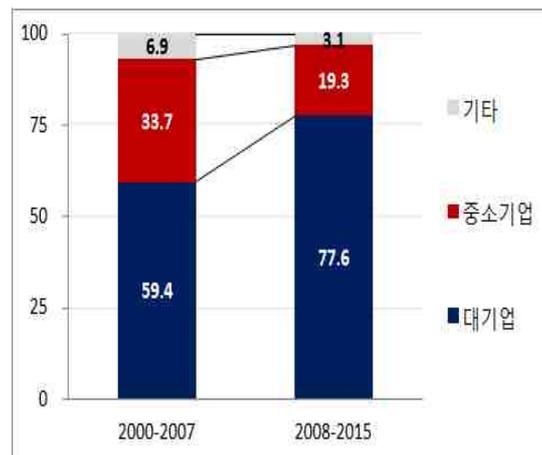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기타는 개인사업자, 개인, 비영리단체 등을 말함.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투자금액 기준, 기간별 누적치 대비 비중.

○ 지역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대기업 주도의 투자가 지속

- 지역별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부지역에 투자가 집중
 - 대기업의 경우, 동부로의 투자가 2000~2007년 92.3%에서 2008~2015년 78.2%로 감소한 반면 중·서부는 동기준 각각 5.5%, 2.1%에서 9.8%, 11.9%로 확대
 - 중소기업도 지역 중 동부에 대한 투자가 동기준 95.0%에서 92.1%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이 지속
- 업종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가속
 -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對 중국 투자는 2000~2007년 61.3%에서 2008~2015년 76.6%로 지속 확대
 - 서비스업도 동기준 대기업이 2000~2007년 59.2%에서 2008~2015년 85.8%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중이 대폭 확대

< 대기업 · 중소기업의 지역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 개인사업자, 개인, 비영리단체 등은 분석에서 제외.

< 대기업 · 중소기업의 업종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만을 고려.

④ 투자 목적별 :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

○ 투자 목적별로는 저임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한 對 중국 투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고,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이 늘어남

- 목적별 對 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
 - 투자 목적별로 볼 때,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투자되는 규모는 2015년 현재 22.3억 달러로 전체 對 중국 투자 중 78.1%를 차지
 - 또, 저임활용 목적은 2000년 1.1억 달러에서 2008년 9.2억 달러로 급증했으나,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상향 등 인건비 증가로 2015년 1.1억 달러로 감소
 - 수출촉진 목적도 2000년 4.1억 달러에서 2007년 11.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중국 외수경기 둔화로 지속 하락하여 2015년 3.5억 달러로 감소
- 시기별로 구분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으로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투자되는 비중이 급증
 - 전체 對 중국 투자 목적 중 수출촉진 및 저임활용 비중은 2000~2007년 각각 32.3%, 20.7%에서 2008~2015년 각각 17.4%, 11.5%로 감소
 - 하지만,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는 동기간 27.6%에서 67.0%로 급증하는 등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양상이 나타남

< 목적별 對 중국 직접투자 규모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對 중국 직접투자 목적별 비중 >
(비중, %)

구분	'00-'07	'08-'15
보호무역타개	3.3	1.2
선진기술도입	0.5	0.3
수출촉진	32.3	17.4
원자재확보	0.7	0.0
자원개발	1.0	1.5
저임활용	20.7	11.5
제3국진출	0.1	0.8
현지시장진출	27.6	67.0
기타	13.7	0.5
합계	100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 2000-2007, 2008-2015는 기간별 단순 평균.

○ 한편, 투자 형태별⁴⁾로 볼 때, 단독투자 비중이 지속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합작투자 비중이 점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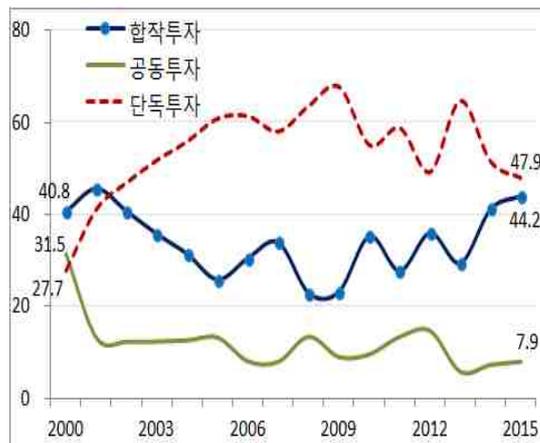
- 최근 對 중국 투자는 단독투자가 감소하고 합작투자가 증가

- 투자 형태별로 볼 때, 對 중국 공동투자 비중은 2000년 31.5%에서 2015년 약 8%로 지속 감소
- 단독투자는 2015년 현재 약 48%로 합작투자, 공동투자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를 나타냄
- 반면, 합작투자는 2000년 40.8%에서 2009년 23.3%로 감소하다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5년 현재 약 44%에 이름

- 특히, 투자 비율은 100%의 경우가 전체 투자의 50%를 지속 상회

- 對 중국 직접투자 비율 중 100%는 2000년 59.2%에서 2009년 77.2%로 급증하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약 56%로 여전히 50%를 상회
- 한편, 투자 비율이 50%초과~100%미만은 2000년 23.0%에서 2009년 10.6%로 감소하다 이후 상승하여 2015년 약 23%에 이름

< 투자 형태별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 > < 對 중국 직접투자의 투자 비율 구간 >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 주 1) 100%는 단독 및 공동투자 포함.
- 2) 100% 미만은 모두 합작투자를 의미.

4) 투자형태별로는 합작, 공동, 단독투자로 구분되며, 합작투자는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가 같이 투자한 경우를 말하며, 공동투자는 국내 거주자(국내법인) 둘 이상이 공동 투자한 경우(한국 자금 100%)를 의미함.

⑤ 현지 경영 여건 : 對 외투기업 세제 우대 대폭 축소

○ 중국은 2008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정세율을 하향 조정했으나, 국내외 기업 혜택 격차 축소 차원에서 대부분 기존 세제 혜택 항목을 폐지함

- 2008년부터 지방세를 폐지하고 기업소득세(법인세)를 25%로 일괄 인하하였으나, 기타 세금 우대조항은 모두 폐지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
 - 소폭 인하된 25% 법정세율에 관해서는 2008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2014년부터 전면 적용
 - 특히,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세금감면 혜택을 일괄 폐지하고 중국 본토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는 등 기존의 우대정책 축소
- 단, 중·서부 지역의 외투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전액면제 혹은 50%감면 정책과 하이테크 외투기업에 대한 15% 법인세 부과 원칙은 그대로 유지

< 기업소득세(법인세) 혜택 변경 내용 (외투기업 적용) >

분야		변경 전 (2007년 까지)	변경 후 (2008년부터)
법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3% 적용 : 일반 비생산성 기업 • 24+3% 적용 : 연해 경제개발구 기업 • 15+3% 적용 : 하이테크 기업 (3%는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일괄 적용 (단, 하이테크 15%, 중소영세기업 20%) • 지방세 폐지
우대세율	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적용 : 경제특구 외투기업 및 국가급 개발구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 • 24% 적용 : 주요도시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조항 폐지 • 2007년 이전 설립기업은 2013년까지 단계적 폐지
	감면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감면 :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제조업 외투기업, 이익발생년도 2년차까지 • 50% 감면 :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제조업 외투기업, 이익발생년도 3~5년차 •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은 감면세율 혜택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조항 폐지 • 2007년 이전 설립기업은 2013년까지 단계적 폐지 • 공공인프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익연도 3년차까지 법인세 100% 감면, 4~6차에는 50% 감면 • 수출형 생산 외투기업의 관련 우대사항 폐지

자료 : 중국 新기업소득세법 개정안(2007).

주 : 중국은 2008년부터 “외국기업소득세법”을 폐지하고, 외국기업도 중국 본토기업과 동일하게 “新기업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음.

○ 인력고용 측면에서는 최저임금기준이 지속 상향되는 등 고용환경은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노동자 최저임금수준을 꾸준히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들의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
 - 소득분배 개혁은 시진핑 정부 민생분야 최대 화두이며, 이에 따라 2016년 중국의 25개 성(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 평균 인상률은 13.8% 기록
- 사내 노조 지원 및 노동자 사회보장금 등 의무도 가중
 - 외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사내노조에 총임금의 2%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직원들의 5대 보험 및 1대 지원금에 관한 비용부담도 큼
 - 특히, 5대 보험 중 연금보험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2016년에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주택공적금(주택마련기금)도 월급여의 8%에 달함

< 노무관련 비용부담 현황 (외투기업 적용) >

분 야	주 요 내 용	
최저임금	• 2015년 31개 중 25개 성(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 - 평균적으로 13.8% 증가	
노동조합	• 노조 구성 의무화 - 社측은 노조경비로 총임금비용의 2%를 의무적으로 지원	
5대 보험	• 쉰직원 5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기업의 사회보험금 부담률이 40%에 육박(한국은 2012년 기준 10.2%)	
연금보험 (양로보험)	20%(기업부담), 8%(개인부담)	• 개인구좌와 사회총괄기금에 각각 납입 • 2016년 1월부터 기존 퇴직금 수준의 6.5% 추가 인상
의료보험	8%(기업), 2%(개인)	• 기업부담금의 70%, 30%를 각각 의료통합기금과 개인의료전용구좌에 납입 • 개인납부금 전액을 직원개인의료전용 구좌에 납입
실업보험	2%(기업), 1%(개인)	• 사회총괄기금에 납입 - 단, 농촌호구 소지자는 개인1% 부담금 면제
산재보험	최대 1.5%(기업)	• 사회총괄기금에 납입
보육보험	0.7%(기업)	• 사회총괄기금에 납입
1대 지원금 (주택 공적금)	5%~12% (기업,개인 동등금액)	• 직원의 개인주택공적금 구좌에 납입 - 일반적으로 개별직원 전년도 평균월급의 8%를 납입

자료 : 中國國務院이 발표한 관련 법규.

주 1) 산재보험은 산업별로 위험등급에 따라 부담률이 0.5~1.5%임.

2) 5대 보험의 기업, 개인 부담률은 월별 급여 대비 비율을 의미함.

2) 종합평가

○ 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점차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양상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뿐만 아니라, 업종 등에서 對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변화가 점차 나타남
 - 지역별로는 2000~2007년 대비 2008~2015년 동부 지역 투자 비중이 줄고, 중서부가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급증
 - 업종별로는 동기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15.0%에서 23.2%로 증가하였으나, 기업 규모별로는 경기 둔화로 대기업 위주의 對 중국 투자가 확대
 - 한편,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對 중국 투자 비중은 동기준 27.6%에서 67.0%로 대폭 증가되는 등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
- 하지만 외투기업에게 부여되었던 세제 혜택이 2008년 이후 대폭 축소 및 폐지되는 등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
 - 2007년까지 외투기업에게 적용되었던 각종 저세율과 감세 등 혜택을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 제정으로 대폭 축소 혹은 우대 조항을 폐지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對 중국 직접투자 유형 비교 >

구 분		'00-'07년 대비 '08~'15년
지역별	비중	· 동부 감소: 94.1% → 78.8% · 중·서부 증가: 각각 4.7%, 1.2% → 각각 7.6%, 13.6%
	CAGR	· 동부 및 중부 하락: 각각 33.6%, 28.3% → 각각 -5.9%, -4.8% · 서부 급증: -4.8% → 28.9%
업종별	비중	· 제조업 감소: 82.1% → 75.1% / 서비스업 증가: 15.0% → 23.2%
	CAGR	· 제조업 하락: 34.2% → -7.9% / 서비스업 하락: 31.5% → -1.6%
기업 규모별	비중	· 대기업 상승: 59.4% → 77.6% / 중소기업 감소: 33.7% → 19.3%
	CAGR	· 대기업 하락: 32.2% → -1.6% / 중소기업 급락: 31.1% → -10.6%
투자 목적별	비중	· 수출촉진: 32.3% → 17.4% / 저임활용: 20.7% → 11.5% · 현지시장진출: 27.6% → 67.0%
	CAGR	· 수출촉진: 16.5% → -8.5% / 저임활용: 36.5% → -25.9% · 현지시장진출: 65.6% → 1.8%
현지 경영 여건		· 소년별 혜택 부여 → (친환경 등 분야와 중서부 지역 진출 제외)우대조항 전면 폐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 최근 중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경제 전반에 걸쳐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對 중국 투자의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 필요
 - 첫째, 일대일로 등 중국의 지역별 개발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對 중국 지역별 진출 공략이 필요
 - 지난 15년간 對 중국 지역별 투자는 장쑤성, 산둥성 등 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 지속
 - 향후 일대일로(一帶一路), 4대판 3대 경제벨트⁵⁾ 등 지역별 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는 對 중국 지역별 투자 전략도 모색
 - 둘째, 고부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 등 중국의 산업 재편을 겨냥해 다양한 업종 분야의 진출 전략도 구상
 - 중국의 산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제조업 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고부가화 및 융·복합 추진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마련이 필요
 - 또, 한중 FTA를 활용한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 플랫폼을 구축, 이를 통해 환경, IT 등 고부가 제조업 기술 수요 파악 및 진출 로드맵 구상도 병행
 - 예를 들어, 수질 악화 등 중국의 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간 상호 협력을 통한 투자기회 모색이 필요
 - 셋째, 對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함
 - 최근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모두 중소기업의 對 중국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혁신적 기술 및 콘텐츠를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및 다양화 필요

5) 동부, 중·서부 및 동북 등지에 걸쳐 4대판(四大板块) 구축을 추진하고 이어서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창강(長江) 경제벨트 등 3개 경제벨트(三个支撑带)를 결합하는 전략.

- 한편, 대기업에 비해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 중국 진출과 현지화에 필요한 법률 및 경영관리 등 관리시스템도 보다 강화
- 넷째, 노동법 개정 등 최근 對 중국 비즈니스에서 외투기업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이에 맞는 투자 전략 마련이 시급
 - 2008년 이후 신노동계약법 개정뿐 아니라, 최저임금 상향 등 등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외투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
 - 다만, 중국정부는 중서부 지역의 외투기업과 하이테크 분야의 외투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 투자 전략도 필요
 - 더욱이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확장 정책으로 2013년 상해자유무역을 시작으로 광둥, 톈진, 푸젠 등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진출 지역 및 업종의 다양화 모색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